

다시 떠오르는 감염질환, 그리고 결핵

안선희 ■ 한겨레신문 생활과학부 기자

90년대 세계 공공보건 분야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감염질환'으로 '97년 4월 7일 보건의 날, 세계보건기구(WHO)가 내세운 주제는 '다시 떠오르는 감염질환-전지구적 경보, 전지구적 대응'이었다.

미국의 대응은 특히 재빠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94년 <다시 떠오르는 감염질환들-미국의 예방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해에는 다시 2차 보고서 <21세기 예방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감염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0세기 초부터 점점 줄어들어 97년에 1%에 불과했다. 현재 미국 국민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질병은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다.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 감염질환은 '후진국 병', '이미 사라진 병' 정도로 비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산심사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정부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감염질환에 쏟아붓는 것일까?

'다시 떠오르는'(emerging)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감염질환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상태가 아니라 추세와 가능성인 것이다.

감염질환은 불과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백신과 항미생물제 개발이 잇따르면서 인류는 미생물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다. 이제 만성질환의 정복만이 남은 것 같았다.

그러나 기쁨에 들떠 있던 인류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던 미생물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아야 했다.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 균, 에이즈를 비롯한 전혀 새로운 감염질환이 계속 나타났다. 미생물은 더 강해진 반면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면역력은 더 약해지고 있다.

아주 오래된 감염질환, 한때 정복한 것으로 생각한 감염질환, 하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염질환이 바로 결핵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93년에서 96

년 사이에 결핵환자의 13%가 증가했다. 또 지금부터 2020년까지 전세계에서 거의 10억명 이상이 결핵에 새롭게 감염되고 그 가운데 2억명이 발병하고 7천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 1등 공신은 에이즈다. 지난 5년동안 결핵 증가의 3분의 1은 에이즈 때문에 생긴 것이다. 2000년이 되면 결핵환자의 15%가 에이즈환자일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예측하고 있다.

97년 HIV 보균자 3100만명 가운데 3분의 1은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에이즈환자의 합병증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결핵인데, 미국에서는 43%인 반면 한국은 25%로 나타났다고 한다.

내성균도 큰 문제다. 다른 감염질환과 마찬가지로 결핵균도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자의적 치료중단, 잘못된 처방 등이 결핵내성균이 늘어나는 주요한 원인이다. 치료를 어렵게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다제내성균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 무역 등으로 국경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결핵 증가에 좋은 조건이다. 특히 지난 20년동안 9배로 늘어난 난민들의 캠프에서는 결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흡리스트들의 결핵문제가 심각하다. 95년 샌프란시스코 흡리



스의 약 30%, 런던 흡리스트의 25%가 결핵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노숙자의 결핵감염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난해 대한결핵협회가 발표한 바 있다.

후진국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나라도 감염질환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결핵 역시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많이 멀어졌다. 하지만 감염질환의 '생명력'을 무시하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앞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 지 모른다. 아니 이미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그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